화살

1960년 5월 상반호 (125)

남조선 전역을 휩쓴 인민 항쟁의 대 폭풍은 4월 26일 드디어 리승만 역적 무리들의 괴뢰 정부를 무너뜨렸다.

박 승히 그림

3 - APR 11 1961
Copy

《저는 국립 서울 박물관의 해설원이애요》

로 철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의 자랑찬 민주 수도 평양시에서 이곳까지 찾아 와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아는껏 해설해 드리겠어요.

여러분은 우리 박물관에 새로 설치된 반미 반 리 승만 투쟁관부터 보여 달라고 하셨지요? 참, 그 심정 충분히 알만해요! 당신들은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서 영웅적으로 증산하고 건설하고 민주 기지를 철석 같이 다져 왔으니까요!

자, 그러면 먼저 이것부터 보십시다. 이건 탄깍지입니다. 보통 탄깍지이지요, 그러나 이 자그마한 탄깍지에는 참 깊고도 깊은 사연이 스며 있답니다. 이 탄깍지가 바로 남원에서 마산으로 공부하며 왔다가 놈들에게 학살 당한 김 주렬 학생의 이마에 배겼던 최류탄 탄피랍니다. 물론 미국제였지요. 미국 놈들은 이따위 흉기들을 잔뜩 리 승만에게 가져다 주고서는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탄압 학살하여 왔었지요. 어찌 인민들이 격분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때부터 서울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남조선 온 천지에서 인민들의 영웅적 봉기는 전개되였지요.

자, 이 사진들을 보세요! 불타는 놈들의 《자유당 본부》《특무대》《반공 회관》《서울 신문사》《경찰서》《파출소》 그리고 리 승만 괴뢰 집단의 소굴들입니다. 저도 잊을 수 없는 4. 19, 4. 25 서울 시민들의 봉기에 참가했드랬지만… 아이, 박수는 치지 마세요! 저야 뭐 한게 있나요, 그저 쌓이고 서린 울분을 풀려고 여러 동지들과 함께 총을 쥐였을 따름이 였지요, 뭐…….

이 벽돌 쪼박은 무엇이냐고요? 네, 그건 리 기붕 녀석의 유골이라고나 할까요… 이 흉악한 리 승만 졸개 녀석에 대한 재료를 뭐이건 좀 구해다가 여기에 진렬해 보려고 그놈의 집'자리에 사람을 보내 봤더니만 지난날 분노한 인민들이 불질러 놓았기 때문에 뭐하나 성한게 남아 있어야지요. 겨우 주어 왔다는게 다 깨여진 이 벽돌 쪼박 하나였답니다, 호호호…

다음 이건 리 승만이가 대통령 감투를 도적해 쓴지 12 년간에 도깨비 기와'장 뒤지듯이 자꾸만 갈아댄 100 여명 《장관》놈들의 족보이고 저 신발짝은…호호호… 그놈들의 마지막 《내무부 장관》이 였던 최 인규라는 놈이 그때 어찌나 혼'살이 났던지 야밤 도망을 칠때 채 신지 못하고 남겨 놓은 것이고 저 올가미는 결기한 대구 시민들이 경상북도 《지사》놈과 《시장》놈의 모가지를 졸라 매고 시내로 끌고 다니던 것이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진렬된 것은 시위 군중들이 로획한 땅크, 찝차, 트럭, 스리 코타, 택시 각종 무기들입니다.

시위 군중들은 이 땅크와 자동차를 타고 《리 승만은 물러 가라!》《민족 반역자 리 승만을 때려 부셔라!》라고 웨치면서 항쟁을 계속하였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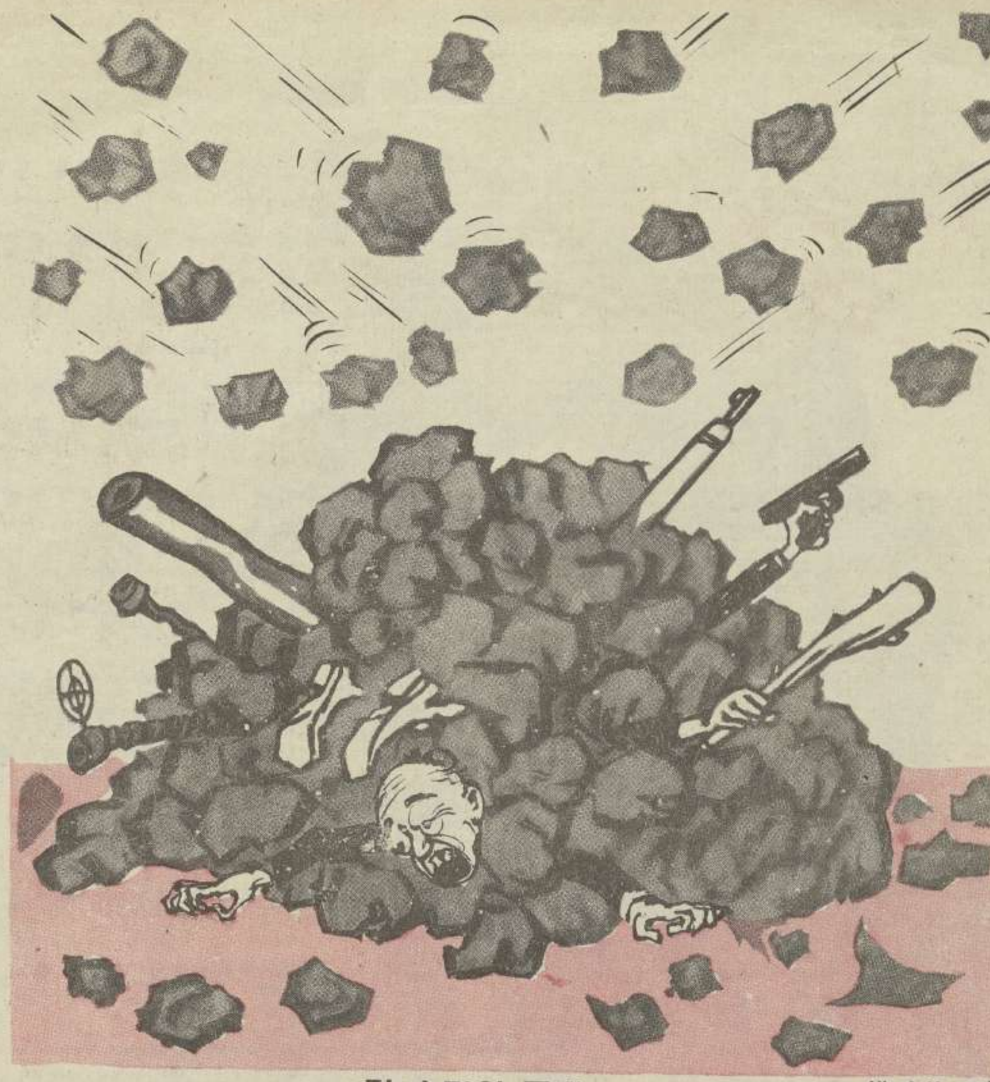
그럼 여러분 저켠 방으로 가십시다. 거기에는 그 고금에 드문 천하 역적놈 리 승만의 동상이 하나 진렬되여 있는데 빠고다 공원에 세워 놓았던걸 격노한 인민들이 들부셔서 쇠사슬로 목을 매여 끌고 다니던 것이랍니다. 참, 우리 박물관에서 그걸 구하기에는 하늘에서 별따기 보다도 더 힘드렀댔어요.

무척 애쓰던 끝에 요행 다 깨여진 이 동상을 구해서 이리 저리 땜질을 하고… 뭐이라고요? 그 동상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아… 참, 여러분, 정말 실례했어요! 제가 그만 깜빡 잊어 먹었댔어요…. 저기 저 궤짝속에 들어 있는게 바로 그놈의 동상이애요. 요 몇 시간 전만 해도 여기에 세워 놓았댔어요.

그런데 파주에서 구경 오셨다는 할머니들이 여기에 나타 났을 때 그 악귀놈의 낯짝만 보아도 그저 악이 받쳐 견딜 수 없다고 하면서, 미리 그렇게 부탁을 해드렸댔는데도 막 달려 들어 들고 패는 바람에 그만 다시 수리해 넣지 않으면 안될 망측한 꼴로 돼 버렸어요. 저희들 힘을 가지고는 도저히 그 분들을 막아낼 수가 없었어요. 기력이 얼마나 세찬지…

네? 이 빈 상자는 뭐하는 것이기에 진렬해 놓았느냐고요? 아, 그건 상자가 아니라 관이랍니다. 누구를 넣어 둘 관이냐고요? 그거야 뭐 빤한 일이 아니애요, 우리 조선 인민의 철천지 원쑤이자 전세계 인민의 용서치 못할 죄인인 미제를 처넣어 둘 것이지요, 뭐. 그날은…그날은 멀지 않았어요!

원 광수 그림



리 승만의 무덤

박 승히 그림

화산이 터졌다

조 명식 그림

막은 아직 안내렸다

류 계환

어느날 복새통에 유리창이 부서지고 문짝들이 떨어져 나간 《마산 시청》 한 모퉁이에서 괴뢰 관리들이 이마를 쪼아 가며 쑥덕 공론을 하고 있었다.

《마산 서장, 시체들을 처리했나? 시민들이 자꾸 들구 일어 나는데……》

《와 아니기로, 절반은 가마니에 싸서 파묻고 절반은 돌 달아서 바다에 쳐넣고…여게 시청 뒷못에도 바'줄로 묶어서 송장개나 쳐넣구마》

새로 부임한 《마산 경찰 서장》의 간드라진 목소리다.

《시체가 모두 얼마나 되여?》

《내사 잘 몰러… 수천발 총탄 퍼부었으니 빗맞았어도 아마 몇십명은…… 아직두 못파묻은 시체가 있으니게로… 인부들 동원해서 마저 처리할끼요》

《누가 뭐라면 하늘에 대고 쏜 총알에 맞은 거락꼬 하면 돼》

《리치에 안맞는구마. 총알이 모두 가슴팍을 뚫고 나갔으니 야단이라.》

《하늘에서 떨어지던 총알이 백성들이 던진 돌에 부딪쳐 맞았다카지, 이 문둥아 그런 꾀도 안나나?》

《아마 떨어지면 총알이 돌에 부딪쳐 튕겨지면서 맞았다꼬…》

《죽은 놈 지꺼릴까, 자꾸 들구 일어 나는 백성들의 입을 틀어 막는게 문제지 기자들께 재료만 안주게스리로》

《아마 인제 됐어, 가해자는 백성이요, 피해자는 경찰이락꼬 들어댈 수 있고마……》

히히… 그놈들이 암만 저네끼리 덤벼도 죽은놈 살려 놀까, 치룬 선거 뒤집어 놀까》

《자유당 시당 위원장》은 신이 나서 고아댔다.

《수사 과장》과 《마산 서장》은 짜르르 웃어댔다.

그러나 그들의 《연극》은 아직 막이 내리지 않았다.

시청 앞에 바다처럼 모여든 군중들은 비분에 차 밀물처럼 시청안으로 몰려 들어 오기 시작하였다.

선두에는 40 세 가량 되는 중년 부인이 흩어진 머리채를 늘어 뜨린채 앞가슴을 헤치고 미친 듯이 달려 들어 오고 있었다. 남원에서 온 죽은 김 주렬의 어머니였다.

《이놈들아! 우리 주렬이를 내놔라! 네놈들이 선거니 앉은거니 하고 사람을 들볶다가 내 아들까지 잡아 먹었지?!……이놈들! 학교 서험 치러 온 학생까지 죽여서 바다에 내 던져? 당장 내 아들을 살려 놔라!》

녀인은 경찰 서장의 멱을 틀어 쥐였다.

사람들은 달려 들어 녀인의 손을 떼려고 하다가 따라 들어 온 시민들이 달려 드는 바람에 그만 질겁을 해 뒷걸음질 쳤다.

《이놈! 내 아들을 살려 놔. 그렇지 않으면 네놈을 바다에 쳐넣을테다!》

녀인은 계속 고함을 질렀다.

주구놈들은 넋을 잃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여여 여보이소… 나 좀 살려 주소…》

서장의 애원이다.

《그러나 시당 위원장》과 《수사 과장》은 뒤도 못돌아 보고 뒤'문으로 뺑소니를 쳤다.

성난 사자 같이 노호한 시민들은 산이 울리도록 웨쳤다.

《더러운 정부를 타도 하라》《살인범들을 잡아 내라!》《선거 새로 하라!》

《서장》은 어쩔바를 모르고 그 자리에서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다.

그 광경은 마치 괴뢰 정부의 말로와도 같았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물러가지 않고서는 식민지 테로 통치 제도가 청산될 수 없으며 남조선 인민들이 빈궁과 무권리에서 벗어 날 수 없다.

미제 침략 군대의 즉시 철거를 요구하여 우리 민족의 모든 애국적 력량을 단합하여 투쟁하자.

박 승히 그림

인민의 심판

송 용남 그림

미제의 《미봉책》

미 제국주의자들은 자기의 충복들로 하여금 《괴뢰 정부》 구성을 개조하며 《내각 책임제》의 《개헌》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민의원》을 해산하고 《선거》를 다시하겠다는 등 미봉책으로 인민들을 기만하려하고 있다.

소위 파도 정권이란 리 승만 괴뢰 정부의 연장이며 그 재판에 불과하다.

박 승히 그림

무너졌다

송 시엽 그림

남조선을 오늘과 같은 기아와 빈궁의 땅으로 전대 미문의 암흑 천지로 전변시킨 장본인은 바로 미 제국주의자들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하루 속히 물러 가야한다.

안 창수 그림

《지불 명령서》

리 철희

김 기복 농민은 터발이라도 뚜지려고 나섰으나 괭이를 몇번 들었다 놓자 허리'맥이 빠져 주저 앉고 말았다. 쌀밥 구경한지도 아득하니 기운이 날리 없었다.

그는 농사를 지을 일을 생각하니 앞이 캄캄하였다.

첫째로 먹어야 일할터인데 먹는 날보다 굶는 날이 더 많았고 둘째로는 종자가 더욱 막연했다. 《농사'군이 죽어도 종자는 베고 죽는다》지만 지난 가을에 지주놈과 리 승만 도당이 마당까지 쓸어서 낟알이란 낟알은 몽땅 빼앗아 갔으니 사실은 베고 죽을 종자도 없는 형편이 아닌가! 한숨 크게 내 쉴맥조차 없어 겨우 앉아 있는데 들에 나갔던 그의 처가 들어 왔다. 누르딩딩 얼굴이 부은 녀인은 중병 환자처럼 간신히 걸어와 그의 곁에 털썩 주저 앉았다.

《나물을 많이 캤구만… 야—여기다가 쌀 한줌이라도 넣어 죽을 쒔으면—》《많아 뵈두 삶으면 한 줌이 되나 마나 해요. 온 겨울 소나무 껍질은 온 동네에서 홀딱 벗겨 먹고 먹을만한 풀뿌리도 인젠 가까이엔 없어요. 단오 전의 풀은 다 먹는다지만 나물이 채 돋기전에 남정네들까지 다 쓸어 나가 캐니 그것도 인젠 가까이선 캐기 힘들게 됐으니 이게 사람사는 세상이우?》 하고 안해가 한숨 쉰다.

이럴지음 동네 개들이 짖어 대드니 금방 빠져 나온 송아지 새끼처럼 대가리에 포마도를 번들 번들 바른 놈파 생트집 잘 잡을 상을 한 순경이 이집 저집에 들려 꿱 꿱 빼걸린 소리를 지르더니 김 기복 농민 앞에도 나타났다.

《자네가 김 기복인가?》

《예! 무슨 일이신지요?》

《지방법원 밀양 지원에서 나왔소 엣소 이전 《지불 명령장》인데 20일 내에 이 금액을 갚아야지 그러지 않으면 아 오막살이며 가마솥까지 몽땅 차압하겠소… 빨간 딱지가 붙기 전에 돈을 내란 말이야》.

《아니 거 《지불 명령서》라는게 대체 뭐요?》

《무식한놈 같으니… 지불 명령서도 몰라?

은행에서 꿔 쓴 돈 갚으란 명령이야!》

《아니 제가 언제 은행에서 돈을 꾸어 썼나요?》

《야 이놈 봐라! 여기 채용 증서가 있어…네놈아 도장까지 찍은 채용증이 있단 말이야》

《혹시 동성 동명이 아닌가요?》

《뭐이? 그래 경상 남도 밀양군 단장면에 김 기복이가 두놈 있음직 하나?》

이럴지음 내 역할 할 때가 왔다는듯이 순경이 앞에 나섰다.

《이자식 순 날강도 놈이구나 다시 말해봐! 안꿔 썼다구? 그러면 단줄 알아?

법에서 죽으라면 죽는 시늉이라도 할게지》 순경은 농민의 뺨을 철석 후려 갈겼다.

《20일 내에 돈을 안냈다간 혼'살이 날줄 알아라.》두놈은 한참 울러 메고 다른 집 대문으로 들어 갔다.

× ×

이날밤 밀양의 한 술집에서는 여러놈의 사기'군과 날강도들이 잔치'상처럼 차려 놓고 잔나비 얼굴로 좌이나 좌이나를 부르다가 한놈이 다른놈에게 잔을 권하며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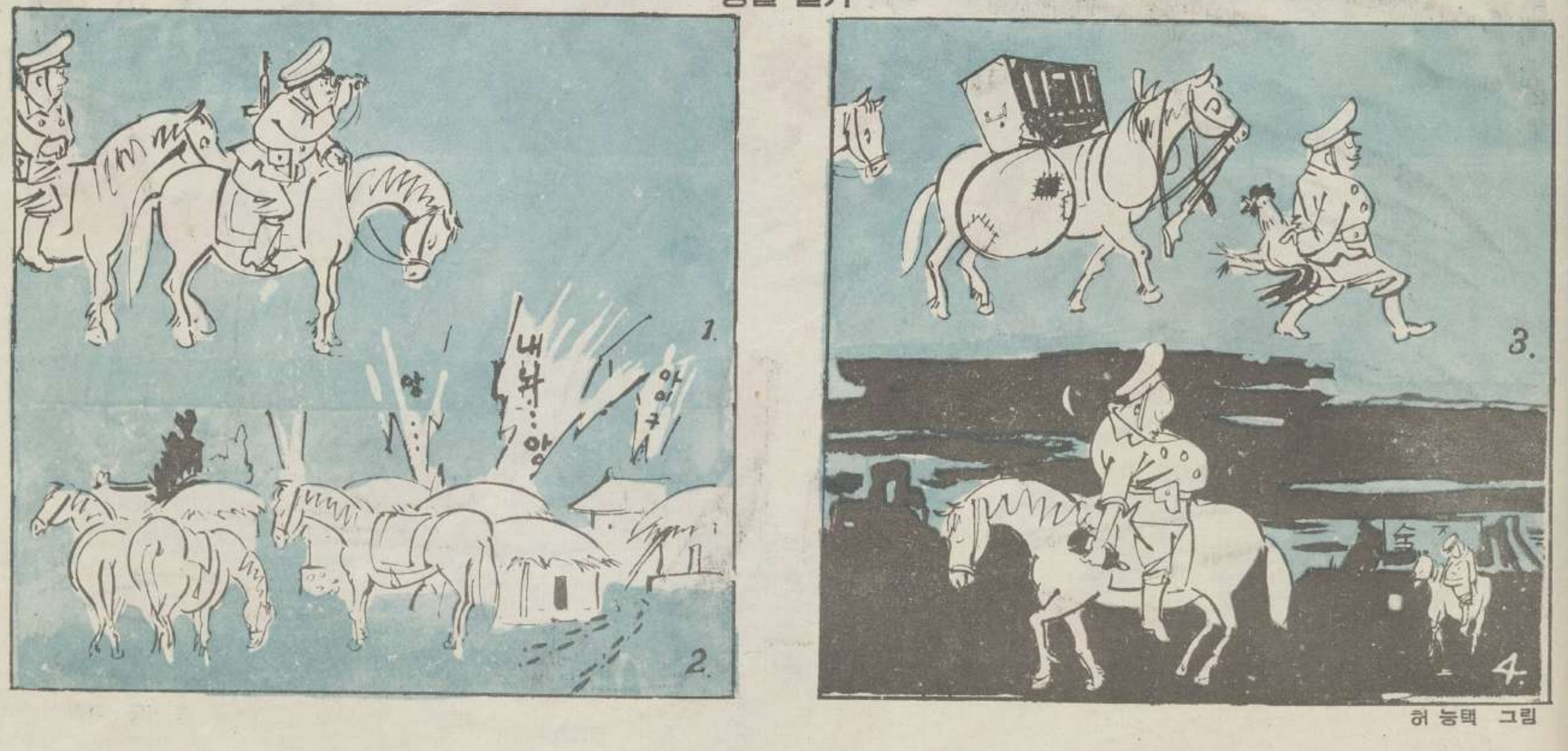
《헤헤헤… 이번 일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야 부스러기를 먹지만 본점파 도 지점 어른들이 날아가는 돈을 먹었었는데 반환기일이 닥쳐 오니 덮어 놓고 우리더러 지방 법원 어른들과 잘 상론해서 처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저 잘 부탁합니다》.

《밀양 지점 단장 분점에서도 150만환은 먹었다던데요? 하여턴 비법, 무법까지 8 법이 있는 대한 민국에서 우리가 못할 일이 있소? 그까짓 가짜 채용증과 지불 명령서 만들기 힘들겠소? 도장쟁이 한놈이면 알아 볼걸, 그저 경찰에서 넉롱만 먹여 준 다음에야……》

《경찰은 걱정 하지 맙쇼 대한 민국 경찰의 솜씨가 있지 않소?》

《자! 그럼 래일의 성과를 위해 한잔 듭시다》 날강도들은 밤 가는줄 모르고 마시고 떠들었다.

경찰 일기



허 능택 그림

남조선 농촌의 봄

허 능택 그림

남조선에는 300 여만의 절량 농민들이 있는바 그들은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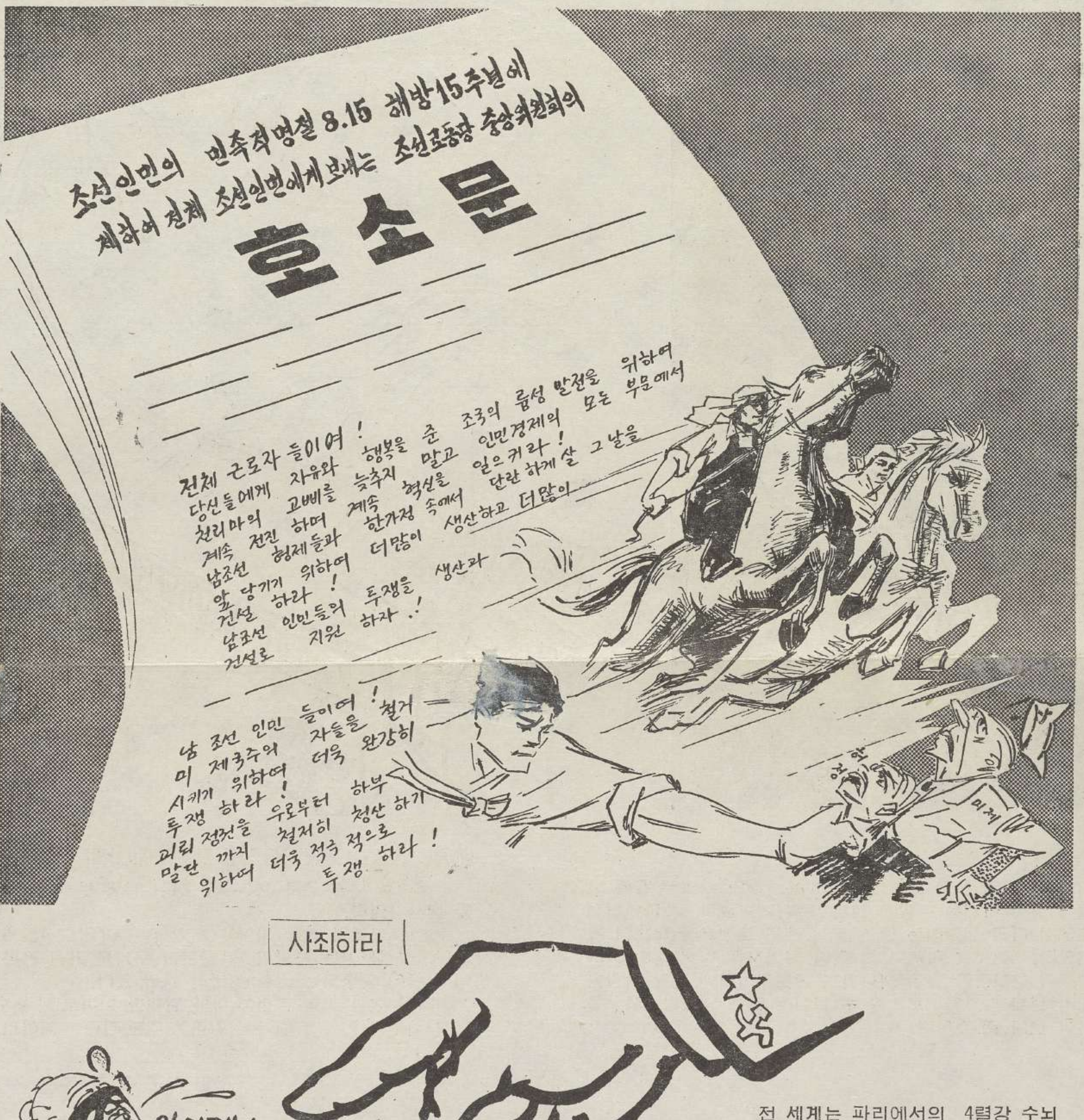
참을 수 없는 분노

허 능택 그림

오늘의 청산리

홍 종호 그림

당의 전투적 호소를 받들고
천리마의 고삐를 늦추지말고 계속 약진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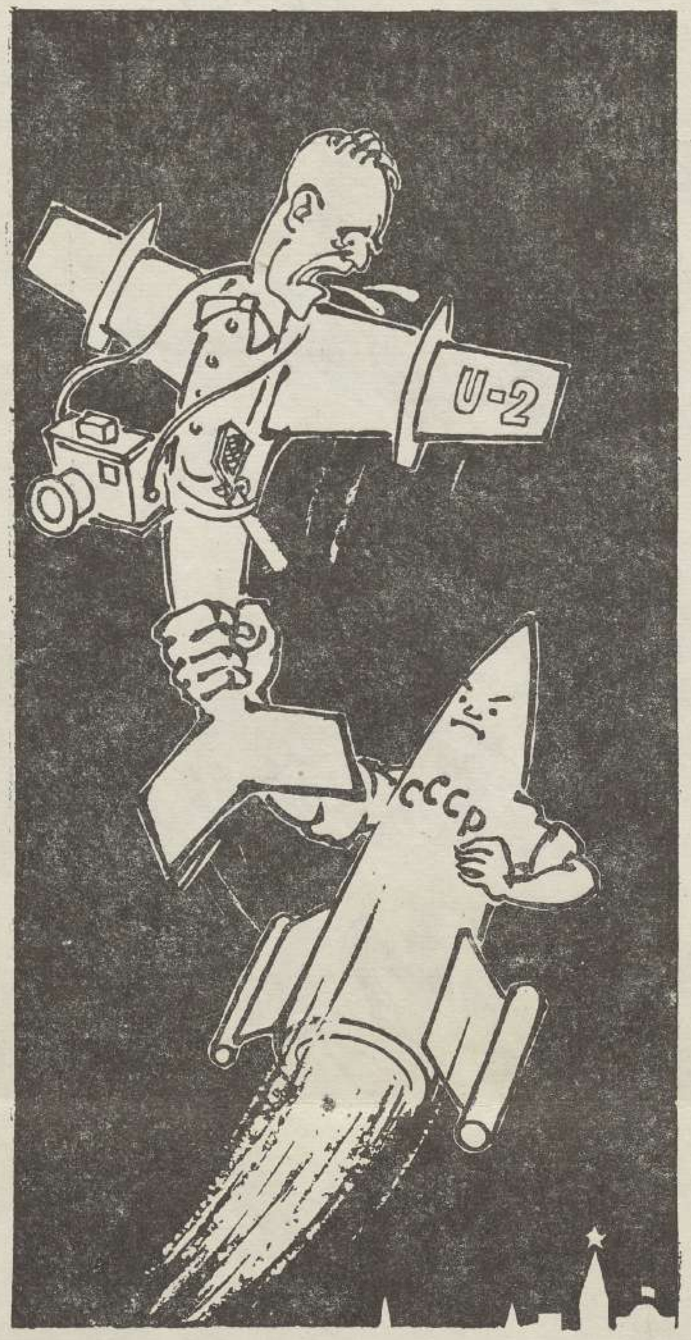


사죄하라

전 세계는 파리에서의 4렬강 수뇌자 회의 소집에 큰 주목을 집중하여 왔다. 그러나 미 제국주의 자들이 쏘련과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을 반대하여 발악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강도적 침략 행동과 전쟁 도발 책동은 이 회의의 개최를 좌절시켰다.

화살 5월 상반호 **부록**

함부로 덤비지 말라!



지난 5월 1일 쏘련 령공을 침범하는 오만 무례한 침략 행위를 감행한 미제는 응당한 보복 타격을 받았다. 2만메터의 고도에서 미국 정찰기는 단 한발의 쏘련 로케트에 의하여 격추되였다. 이것은 미제나 그 어떤 침략자들이 쏘련과 기타 사회주의 나라들을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기만 한다면 해당한 치명적 보복 타격을 모면할 수 없다는 것을 엄연한 사실을 통하여 보여 준 것이다.

더욱 가까와진 우주 려행에로의 길

—이제 우리는 곧 우주 려행을 떠나게 될 것이요!

지난 5월 15일 쏘련에서 지구 위성 궤도 우에 우주 비행선을 발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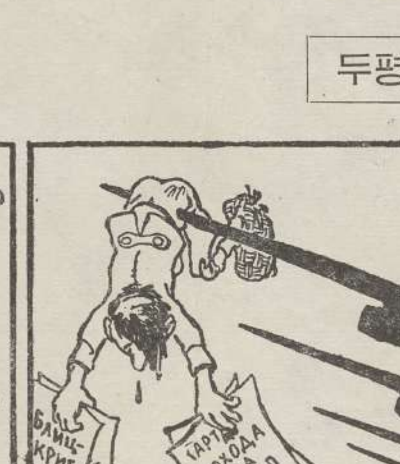
운반 로케트의 최종 계단을 제외한 무게만도 4톤 540키로그람, 비행선에는 사람의 체중만한 무게를 가진 짐과 인간의 비행에 요구되는 일체 설비가 들어 있다.

이것은 인류 과학 발전에 대한 위대한 기여로 될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의 강화에 대한 귀중한 기여로 된다.

두평행선

쏘련 신문 《쁘라우다》에서 전재

히틀러가 지도에 손'가락질 하고 피와 공격을 갈망했으나



그의 모험은 이렇게 모범적으로 종화졌다

서독 수상도 지도에 손'가락질하며 기를 쓰고 있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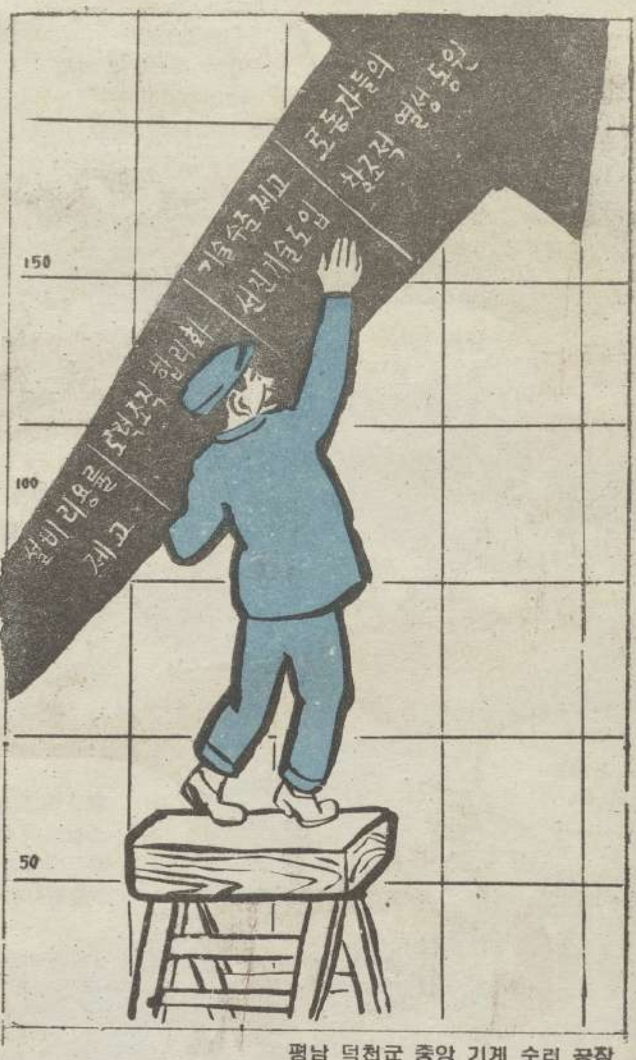
이런 놈이야 말로 리로운 끝을 볼리 만무하다

잃어 버린 탐색 사업

송 용남 그림

황남도 수산 관리국 지도 일'군들은 과학적 어로 방법의 도입에 무관심한 데로부터 어로 기사와 탐색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군 탐색 사업을 계속 조직 진행하지 않고 있다.

로동 생산 능률 제고는?!



평남 덕천군 중앙 기계 수리 공장
허 봉춘 그림

큰 꿈 꾸는 새에 복을 놓친다

일부 수산 사업소에서는 계속 큰 고기떼만 바라 보고 중소 어업을 홀시하는 경향을 시정하지 못하고 있다.

송 용남 그림

고기—왜 우린 보는 척도 안하는건가!?

어지러운 채점법

동신군 서양 농업 협동 조합 14 작업반에 처음 오는 사람은 이 작업반엔 혹 옛말에 나오는 장수 같은 사람이라도 있는가 하고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은 보통 다른 조합에서는 제일 힘든 작업(5급)의 정량을 해야 1.5이고 2점을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는데 이 작업반에는 하루에 7.5까지 버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사람을 아무리 주의 깊이 보아도 장수다운 점은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에게 어떤 요술이라도 있는가? 그렇다 그는 《요술》을 가지고 있었다.

조합적으로 송침의 기준 정량이 스물 다섯단이였었는데 14 작업반장은 반원들은 먼데 보내고 자기는 송침할 것이 많고 가까운 곳에 가서 하루에 무려 80단을 했다 (물론 손'가락만큼씩 묶어서)

그래서 그는 송침을 한 것으로 5 점하고 다른 작업을 한 것까지 해서 그날 7.5를 벌었다. 헌데 제일 힘든 발갈이를 한 사람은!.5를 벌었다.

일한 량과 질에 따라서 로력일을 정확히 평가하라는 지시를 준 관리 위원장은 며칠 후에 14 작업반에 나가 조합원들 에게 물었다.

《동무는 어제 발갈이를 했는데 왜 1.35 밖에 못벌었소?》

《그야 내게 달렸나요》

《그럼 누구에게 달렸단 말이오?》

《약한 소에게다두 같은 정량을 주어 아무리 애를 써도 어떻게 정량을 하겠소. 그래서 거름 놓는 녀자들은 1.5까지 번 사람이 있는데 난 발을 갈고도 겨우 1.35 밖에 못벌었슈다. 그러니 그게 어디 내게 달렸소》

《동무는 왜 어젠 1.75를 벌었는데 오늘은 1.25 밖에 못 벌었소?》

위원장은 다른 조합원에게 물었다.

《어제야 신수가 좋은 날이지만 오늘은 신수가 나쁜 날이거든요》

《그런 옛말 같은 소리는 걷어 치우오. 지금 인공 위성이 하늘을 날아 다니는 때에 신수가 무슨 신수요?》

《글쎄 위원장 동무, 그 옛말 같은 소리가 들어 맞을 때가 있습니다그려, 보시우, 우리 작업반에선 발갈이 정량이 갈기 쉬운 발도 800평, 돌발도 800평이니 신수가 좋은 날엔 갈기 쉬운 발이 맞다 들려 1,8 쯤 벌지만 오늘 같이 신수가 나쁜 날에야 돌발이 맞다 들려서 애는 썼지만 1.25거든요》

《그런데 왜 동무들은 가만 있었소?》

《글쎄 그건 우리 잘못만도 아니지요. 작업반장 눈밖에 났다간 손해랍니다. 일도 힘든걸 시키고 점수 매길 때도 〈참고〉가 되니까요》.

여기서 관리 위원장은 로력일 평가 그루빠도 조직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정확한 작업 정량도 제정함이 없이 작업 반장의 독단에 의하여 로력일을 평가케 한 자기의 잘못도 있다는 것을 뉘우치면서 총총히 조합 사무실로 발을 옮겼다.

리 윤봉

남속임이 제속임

함남 홍상군 홍상 요업 공장
리 주완 그림

(나의것) 과 (우리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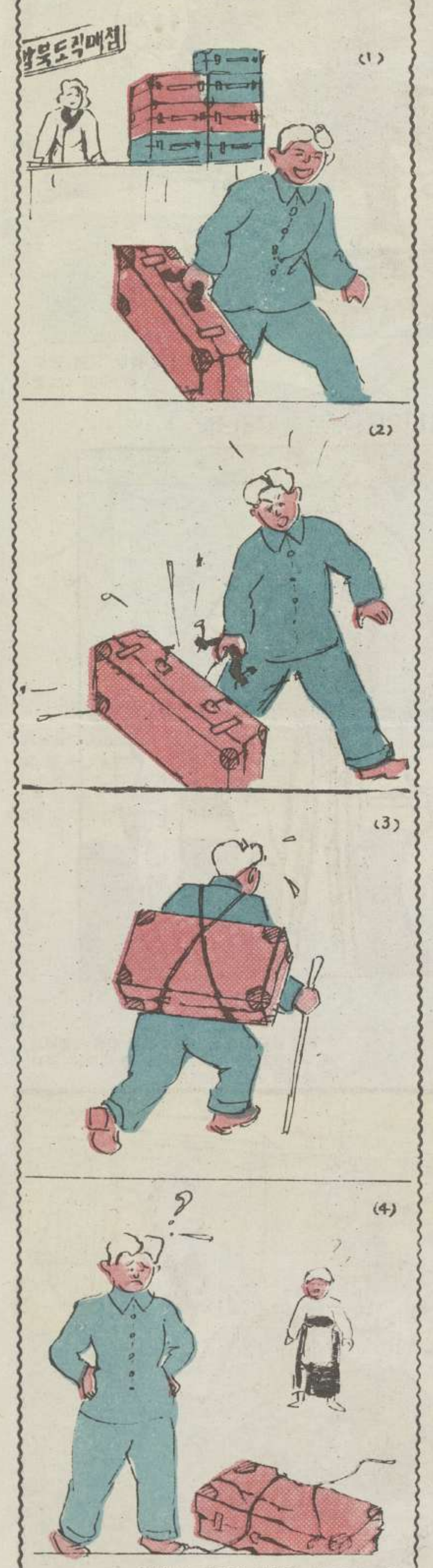
평양시 박 찬갑 그림

황해 남도 신천군 반정리 농업 협동 조합에서 매 작업반별 5일 계획도 없거니와 로력일 평가를 정확히 하지 않고 있다.

허 능택 그림

작업반장—얘야 어서 로력 점수를 불러라.
영남—어떻게 매 사람의 점수가 같아요?

특제품



평양시 중구역 서재동 김 룡 그림

출근 시간은 못 지켰으나 퇴근 시간은 잘 지켰다

운산군 종합 상점에 근무하는 일'군들은 개점 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므로써 손님들에게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

송 시엽 그림

는 것은 품종이 아니였다

토산군 식료 공장 제품들이 먹음직하지 못한데다 가지'수가 매우 적어졌다는 소문이 토산군내에 퍼지자 지배인은 《품종 확대안》을 만들게 되였다.

《식료품의 가지'수를 아주 《창조적》으로 확대하여야 채산을 맞출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제분 부문에서 경비를 안 먹이고 품종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문제입니다》. 지배인의 《품종 확대안》을 듣고난 동무들은 무슨 수수께끼인지 몰라서 골을 흔들다가 어느 친구가 그 내용을 인차 알아 차리고 깨쳐 바쳤다.

《옥수수, 모밀, 밀, 밤 가루를 내는 것은 품종이 각이하지만 그건 가정 부인들의 삯방아를 찧는 정미업인데 거기에 이 무슨 대책입니까?…》

품종 확대에 기본적으로 걸린 애로와 난관을 솜씨 있는 허풍으로 무마해 보려던 지배인은 한참 어름어름하다가 할 수 없어 얻어 들었던 똑똑치 못한 《경제 지식》을 내밀었다.

《하—동무들이 잘 모르는군, 원체 사업가의 《경영 방침》이란 타산해 보는 측면이 매우 복잡합니다. 우리 식료 공장이 절약해서 품종을 확대하자면 질이 낮아져서 안될게구 그밖에야 어데 심통한 방법이 나서겠소?…》 이렇게 말을 맺고난 지배인은 저으기 만족한 빛을 만면에 띄워 보았다.

그러나 몇번의 생산 협의회도 이 품종 문제를 가지고 론의하면 끝에 결국은 지배인의 속뜻과 틀려서 결론을 얻지 못한채 있었다. 이러는 판에 지배인에게는 각처에서 독촉, 통지, 련락이 밀려 들었다.

도 자재 관리소와 원료 기지들에서 계약한 산채, 소채, 육류들을 날라 안가서 식료 공장에 련달아 독촉이 왔다.

알사탕 원료 물엿을 인수해 가라는 통지를 받은 지배인은 일곱번의 독촉을 받고야 겨우 사리원에 인수원을 띄우기는 했는데 벌써 그 원료는 다른 공장에 나가서 알사탕으로 되여 나온 때였다.

사리원 급양 독채와 각처에서도 련달아 독촉이 밀려 왔다.

《우리하고 계약한 식료품들이 어떻게 돼서 소식이 없습니까?》

어떤 조합에서는 계약을 체결한 산채와 소채류를 가져 안가면 토끼 량식으로 돌리고 나머지는 자체 소비를 하겠다는 소식까지 왔다.

이렇게 배정한 원료도 제때에 인수해 가지 않으면서 도와 군에서 원료를 갖다 줄 것만 기다렸다.

시간이 갈수록 이런 저런 리유로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품종은 점점 줄어 들고 지배인의 구실은 늘어 갔다.

《무모한 품종 확대》는 뜻밖의 기업 손실을 보는 수가 생겨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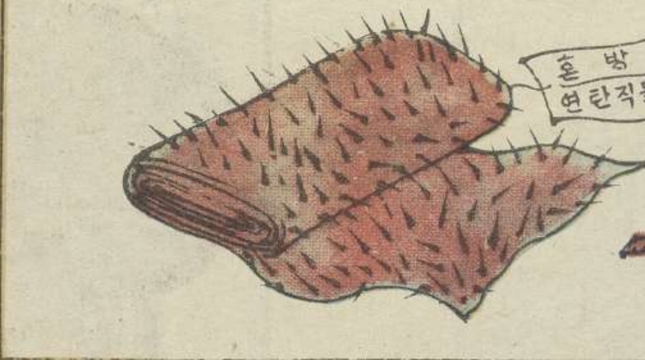
이 걱정은 오늘까지 꾸준히 지배인의 머리를 짜게 만들었다.

분기 총화를 해 보고 4월 총화를 해 봐도 품종 확대는 볼게 없고 위약금으로 인한 기업 손실과 지배인의 구실만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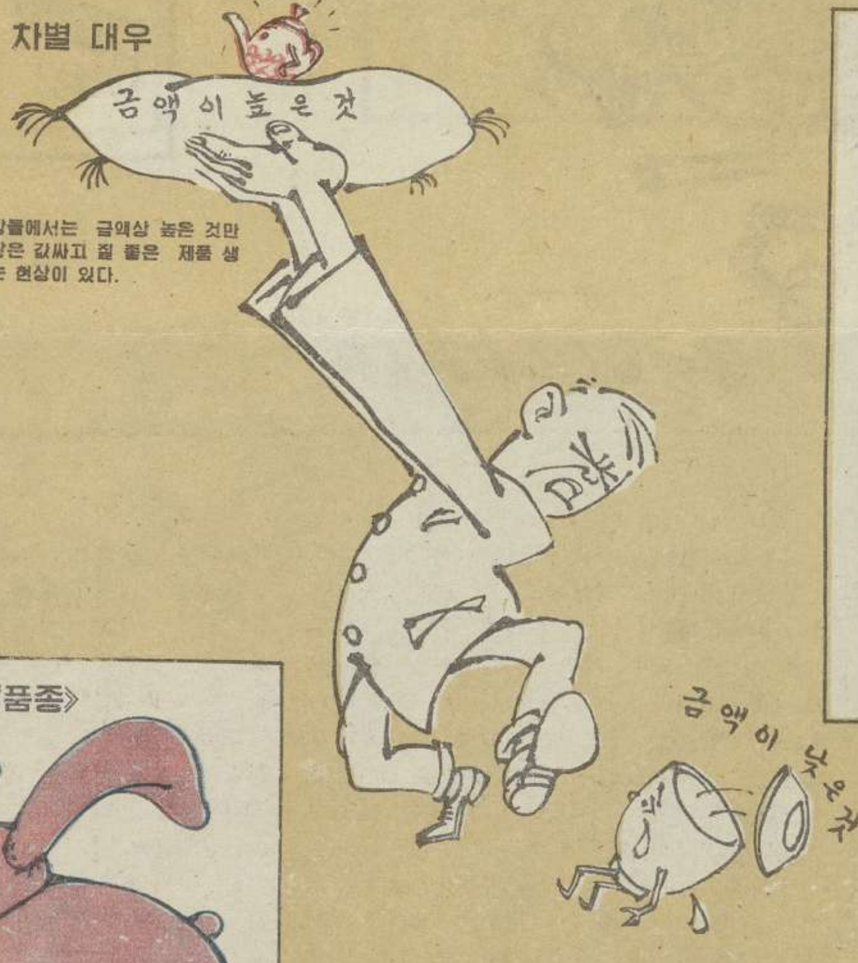
서 득창

적당한 사용처

—어떻습니까 몸에 맞습니까?
—우리들 옷에는 그저 그만이구만요…



차별 대우



일부 일용품 공장들에서는 금액상 높은 것만 생산하고 수요가 많은 값싸고 질 좋은 제품 생산에는 등한히 하는 현상이 있다.

양말이냐 자루냐?

새 《품종》

—아니야! 강아지야…
—아니야! 토끼야…

—코를 막고 쓰도록 하세요…

최 영근 그림

박혔다!

최 영근 그림

《통행증》

조 인석

남아 련방의 샤프빌에서 1만 2천명의 아프리카인들이 인종 차별법의 하나인 《통행증법》을 반대하여 시위를 단행하였다.

남아 련방 정부 수상 버워드는

《긴급 내각 회의》를 소집하고 이 문제를 토의에 부쳤다.

버워드는 모여 앉은 상들을 휘둘러 보고 나서

《상들도 아시다싶이 검둥이들의 기세는 대단하오, 흑인들이 다시는 시위나 폭동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철저한 사전 대책을 세워야겠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계 여론의 비난을 받을 뿐더러 남아 련방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요》

내무상; 《수상 각하, 세계 여론의 비난은 문제가 없습니다. 보도 판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에게 불리한 보도는 국외로 새여 나가지 않도록 《통행증》을 압수한 셈이지요. 우리는 비단 검둥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비위에 거슬리는 모든 것에 《통행증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원주민 관계상; 《아니요, 오늘에 와서는 그 《통행증법》이 바로 문제란 말이요. 나는 회유 정책을 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오. 《통행증법》을 폐기한다고 선언하잔 말이요, 그러면 흑인들은 갈아 앉을 것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들을 마음대로 구속할 수 있는 법령이 아직 70 여종이나 있으니 걱정될 건 없단 말이요.》

버워드; 《그럴 수는 없소, 《통행증법》은 그 어느 법령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요. 《통행증법》의 의의는 《통행증》을 가지고 있지 않는 흑인들을 잡아다가 백인 농장에서 마음대로 부려 먹을 수 있는데 있지 않소! 그런 흑인들의 수는 지금 64만명이나 되우. 만일 이것이 없다면 백인 농장들은 파산해야 할 것이요》.

이렇게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을 때 전화벨 소리가 요란스럽게 울려 왔다.

수상 버워드는 수화기를 들자 대번 얼굴에 피'줄이 일어섰다.

《흑인들이 또 폭동을 일으켰다구 제길할, 아니, 그놈들이 통행증을 모조리 불살랐다니?!》

그는 수화기를 내던지고 벼락치듯 호령을 내렸다.

《우리는 옥신각신하고 있을 수 없소, 케이프타운, 두르반, 포트 엘리자베스에 급히 응원군을 보내야겠소. 우리 수도 주변도 위험하오. 수도에서는 내가 친히 지휘를 하겠소. 그놈들은 아직 총알맛을 덜본 모양이요. 본때를 보여 줘야지》.

상들은 와르르 흩어져 가고 버워드는 곧 폭동 현장으로 달려 갔다. 그러나 버워드는 폭동 현장에 다다르기 전에 어데선가 날아온 권총알로 목과 뺨에 부상을 입었다.

《으악!》하고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쓰러진 버워드는 병원에 실려와 한참만에야 정신을 차렸다.

그는 비서가 옆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자 물었다.

《폭동은 진압되였소?》

《진압되기는 고사하고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증원 부대들은 어떻게 되였소》

《폭도들이 도로를 차단하였기 때문에 모두 되돌아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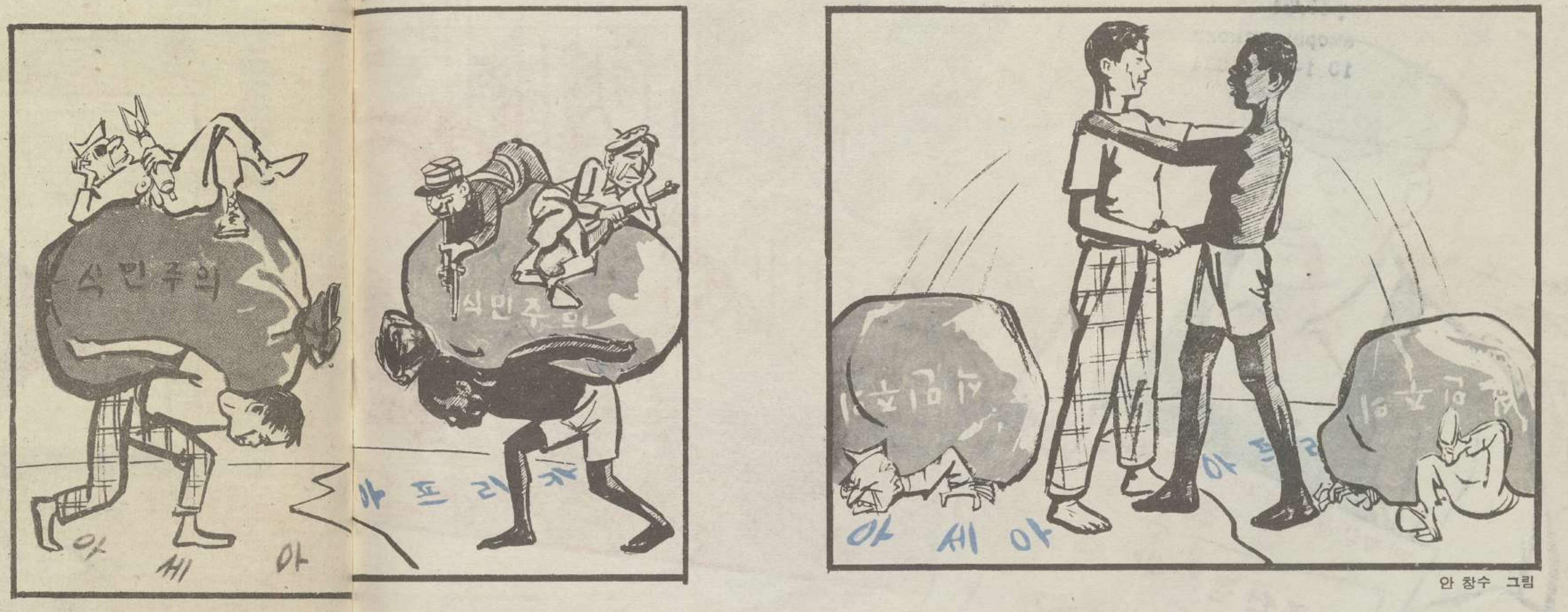
《아니 우리 군대가 검둥이들에게 통행 금지 당했단 말인가. 아이구》

《말하자면 그렇게 된 셈입니다》

버워드는 이 말을 듣자 가슴에 십자를 그으며 《아이구 모조리 통행 금진가》 하고 신음 소리를 내더니 또 의식을 잃어 버리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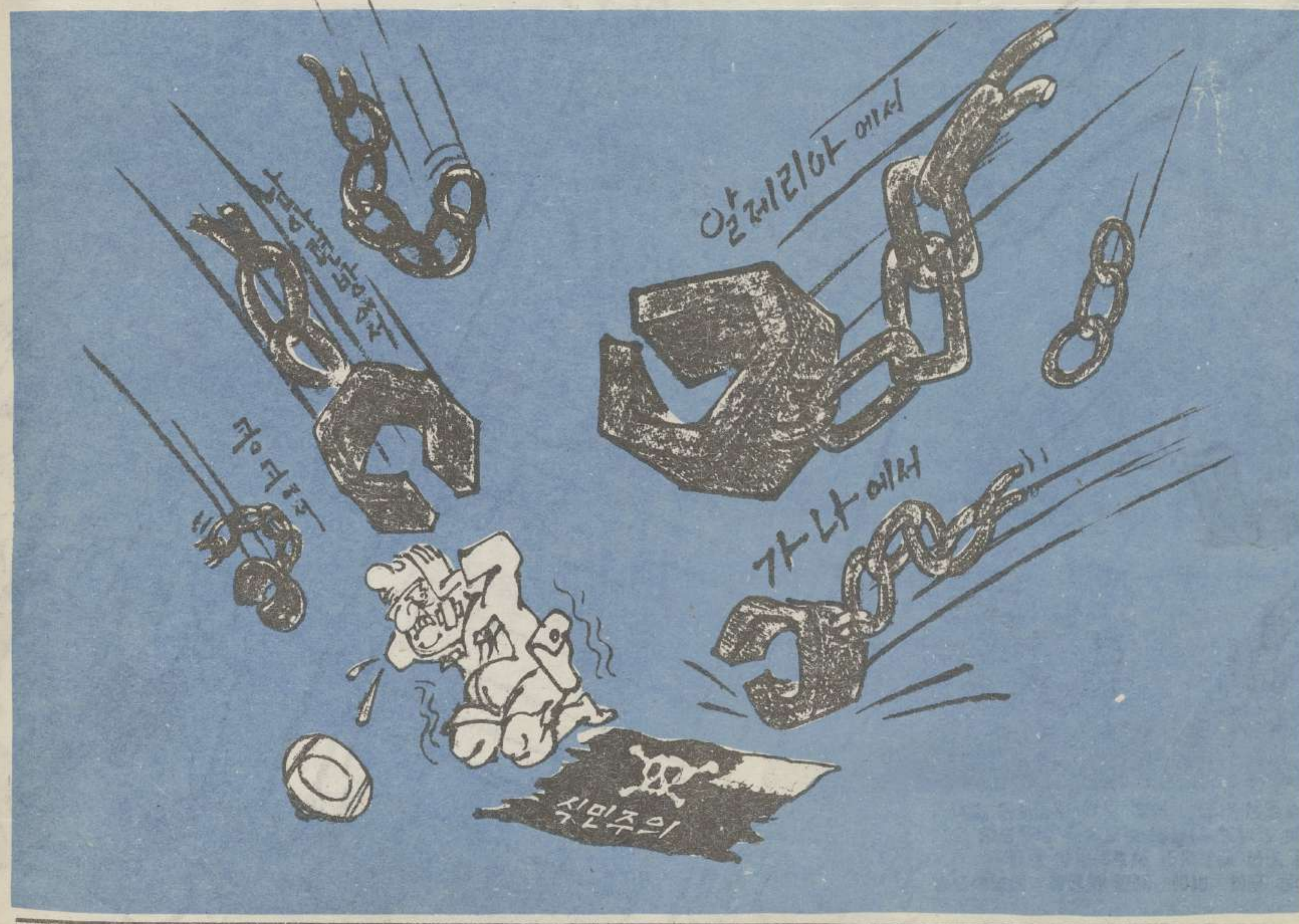
두 대륙의 힘찬 기세

제 1차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 단결 회의는 두 대륙 인민들이 굳게 단결하는 것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로 되며 서산에 기울어진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운명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안 창수 그림

때는 왔다



편집 위원회
발행소 국립 미술 출판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15462
발행 1960. 5. 10
(값 40전)

ПЭК 8
ул. Чайковского
г. 19/21
американскому посольству
10 1-12 №8034

8034
ХВАЛЬСАЛЬ
95

“남북조선의 정당 사회 단체 대표들은 한자리에 모여 긴박한 사태의 수습책을 강구하며 모든 문제를 조선 사람끼리 해결하여야 한다…

출로는 모여 앉아 제반 문제를 협상하는데 있다.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에서 남조선에 조성된 현 사태와 관련하여 발표한 호소문 중에서)

원 광수 그림